

# 日·韓 動詞의 多義語의 副詞적인 표현에 관한 研究\*

- 遊ぶ와 놀다를 中心으로 -

김도은\*\*

(e-mail : Kim30ms@hanmail.net)

## < 목 차 >

- |                           |                           |
|---------------------------|---------------------------|
| 1. 서론                     | 3.1. 移動的인 體系와 多義語적 표현의 관계 |
| 2. 연구방법 및 사전적 의미와 용례      | 3.2. 休息的인 體系와 多義語적 표현의 관계 |
| 2.1. 연구방법                 | 3.3. 情態的인 體系와 多義語적 표현의 관계 |
| 2.2. 사전적 의미와 용례           | 4. 多義語의 範疇에 속하는 語句의 관계    |
| 3. 日·韓動詞의 多義語의 副詞적인 표현 분석 | 5. 결론                     |

キーワード : 多義語(Polysemic word), 動詞(Verb), 遊ぶ(Asobu), 놀다(Nolda), 副詞(Adverb), 體系(System)

## 1. 서론

본 연구는 일본어 동사 遊ぶ와 한국어 동사 놀다의 多義語의 共起的, 副詞的表現에 관한 어휘적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로서는, 어휘 체계의 위치를 파악하고, 多義語 관계의 共起的, 副詞적 표현을 선별하여, 기존의 동사의 의미항목과 현재 새롭게 동사의 의미기능을 획득하였다고 인정되는 항목, 즉 의미의 확장된 범위를 포함한 언어 연구의 목적을 전망한다.

이제까지 일본어 遊ぶ와 한국어 놀다 동사는 多義語의 副詞的인 표현에서의 어휘적 의미연구는 현재 이루어져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2701)

\*\* 영남대학교, 연구원, 일본어학

의 遊ぶ와 놀다 동사의 多義語의 共起的, 副詞的 표현의 어휘대조분석은 언어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대상이며 앞으로 어학적 언어연구에 있어서 중요하고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2. 연구방법 및 사전적 의미와 용례

### 2.1. 연구방법

본 연구의 動詞의 意味記述에 관련되는 論文 및 著書로는 奥田靖雄(1967)<sup>1)</sup>와 宮島達夫(1972)<sup>2)</sup>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宮島(1972)는 單語의 意味를 分析 할 때, 의미를 여러 종류의 의미특징으로 나누고, 의미기술은 그와 같은 의미특징을 기초로 하여 진행해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 및 실천하고 있다.

遊ぶ와 놀다 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인데, 意味를 一般化, 抽象化하여 意義素를 찾아내는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과 多義語의 共起的, 副詞的 표현의 意味構造로서 분석, 조사한다.

이에 대한 方法으로 奥田(1970)는 多義語의 意味構造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현재 사용하는 單語와 다른 單語와의 關係를 보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본 필자도 奥田(1970)를 근거로 하여 어떠한 의미에서 自由스런 狀態의 行爲를 이루는가(自由意志)、그 行爲에 目的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心的인 重点에 놓여 지는지, 아니면 단지 動的으로 움직이는 것뿐인지에 대한 語義·用法이 상호 관계하는 측면을 찾아본다. 이에 대하여 「遊ぶ」와 놀다의 어휘 体系의 概觀을 살펴본다. 이러한 위의 선행 연구자 奥田(1960, 1968~1972)<sup>3)</sup>의 諸論文 가운데 連語의 記述이 본 필자가 共感하는 언어의 범위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밖에 現代雜誌에 나타나는 「遊ぶ」의 意味解釋을 田中章夫(1978)<sup>4)</sup>는 다음

- 
- 1) 奥田靖雄(1967) 「語彙的な意味のあり方」 『教育国語』 8号、同1985 『ことばの研究・序説』 むぎ書房 pp.3-20.
  - 2) 宮島達夫(1972) 『動詞の意味・用法の記述的研究』 国立国語研究所 秀英出版 pp.5-13.
  - 3) 奥田靖雄(1960) 「を格のかたちをとる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1968~1972) pp.7~32. 「を格の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言語学研究会編(1983) 『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 むぎ書房 pp.151-279.
  - 4) 田中章夫(1978) 「語彙の体系と構造」 『国語語彙論』 明治書院 p.68.

과 같이 論하고 있다.

「ある語についてのフィールドが描けたら、その対語に拡張し、さらに上位・下位のフィールド、隣接のフィールドに及ぼしていくといったやり方で、フィールドの重層化、組織化を進めて行くことができる。その結果、語と語の関係が明らかになるとともに各語の位置づけが決まり、語彙の構造が組織的に把握しうる」

라고 필드(フィールド)作成의 有効性を 強調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遊ぶ와 놀다의 意義素解明을 위해 필드를 作成하고 그 상관관계성을 비교한다. 즉 일본어 遊ぶ의 의미체계는 自由로운 狀態에서 行爲를 이루는 自由意志라고 말할 수 있고, 즐거운 狀態가 되고 無限定的이다. 이것은 行爲에 목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一] 目的이 있는 行爲의 의미항목

- ① 移動하다: 遊興地(觀光地)등을 방문하다
- ② 즐기다(楽しむ(心理的状態))
- ③ 行爲하는 것에 相手(対象)가 있는 경우
- ④ 상대방에의 態度(他動詞)
- ⑤ 遊ぶ에는 具體적인 行爲、狀態를 指示하지 않는 傾向

[二] 目的이 없는 行爲의 의미항목

- ① 步行하다(あるく), 移動하다(散歩する, ぶらつく)
- ② (시간, 때를)보내다(過ごす), 빈둥대다(ぶらぶらしている)
- ③ 心的行爲일 경우(没頭する, ふける, はまる)

이러한 일본어 遊ぶ와 한국어 놀다 동사의 語彙적인 意味의 調査와 記述을 살펴보면 있는데 있어서, 실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例의 資料로는 現代어 사전을 비롯한 国立国語研究所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少納言) 등의 資料를 기초로 한다. 또한 韓国語도 日本語와 마찬가지로 現代어 사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文學작품과 国立国語院 『21世紀世宗計劃』(言語情報나눔터) 등의 資料를 活用하여 分析한다.

이러한 연구의 내용과 범위에서 現代 日本語의 어휘체계와 意味에 대하여 動詞 遊ぶ의 分析·記述이 필요하다. 日本語 사전에는 遊ぶ가 他動詞로서의 用法을 취하지 않는 부분도 나타나지만, 自動詞와 他動詞用法의 關係와 多義語의 어휘체계에 의한 分類 가운데 사람의 하루생활의 動作가운데 「休む(遊ぶ)」의 行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休む는 遊ぶ의 意味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遊ぶ의 多義語적인 측면에서 意味를 3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 1) 移動的인 体系: 어떤 場所 안, 또는 距離를 移動하고 있는 경우
- 2) 休息的인 体系: 그다지 움직이는 일 없이 定置하고 있는 경우
- 3) 情態的인 体系: 場所, 距離의 遠近에 關係없이 돌아다니는 狀態

이와 같이 遊ぶ의 어휘적인 意味체계를 구분하고, 多義語의 共起的, 副詞的인 表現의 구성關係를 기술한다.

## 2.2. 사전적 의미와 용례

현대 일본어 遊ぶ와 한국어 놀다 동사의 실제 자료는 사전에서 多數多量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의 体裁와 구성에서 遊ぶ의 意味·用法을 조사한다. 이러한 가운데 語彙的인 意味의 說明 또는 解釋과 함께 실제적인 用例文의 使用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長尾勇(1973)<sup>5)</sup>의 『類語用例辞典』을 비롯하여 森田良行(1992)<sup>6)</sup>의 具體的인 多義的表現을 列挙한 사전 등이 있다. 또한, 森田良行(1989)<sup>7)</sup>는 現代 日本語의 基礎的인 語彙項目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解説을 기술하고 있다.

日本語사전으로서는, 金田一春彦外(1980) 『学研国語大辞典』、大野晋外(1981) 『類語新辞典』, 柴田武外1(2003) 『類語大辞典』, 時枝誠記(1975) 『例解国語辞典』、森田良行(1989) 『基礎日本語辞典』 등이 있고, 韓國語사전으로서는, 李熙昇(2004) 『옛센스 国語辞典』과 延世大学校 言語情報開發研究院(1998) 『延世韓國語辞典』, 金光海(1984) 『類義語·反意語辞典』, 国立国語研究院(1999) 『標準国語大辞典』, 高麗大学校 民族文化研究院 国語事典編纂室(2009) 『高麗大 韓國語

5) 長尾勇(1973) 『類語用例辞典』 第二版 集英社 pp.10-397.

6) 森田良行(1992) 『日本語の類意表現』 創拓社 pp.13-49.

7) \_\_\_\_\_(1989) 『基礎日本語辞典』 角川書店 pp.42-44.

大辞典』, 金敏洙外(1991)『金星版 国語大事典』金星出版社 등이 있다.

이러한 遊ぶ와 한국어 놀다 동사에 관한 사전의 의미 항목을 살펴본다. 우선 일본어 『小学館日本語新辞典』<sup>8)</sup>의 動詞「遊ぶ」는 自動詞로서의 의미항목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仕事や学業などを離れて趣味・娯楽・運動などを楽しむ。また、子供が好きなことをして 時を過ごす。「野球をして遊ぶ/テレビゲームで弟と遊ぶ/よくあそび、よく学べ。」擬人的に、鳥獣虫魚などが楽しそうに働き回ることもいう。「小猫がじゃれ合って遊んでいる」「花壇に遊ぶ蝶」「池に遊ぶ鯉」など。
- ② 酒色にふける。また、料亭や遊里などで楽しむ。遊興する。  
「若いころさんざん遊んだ人/彼は新宿でよく遊ぶらしい。」
- ③ 仕事や勉強をしないでぶらぶらする。また、職業をもたないでいることや、上の学校に入れないでいることもいう。「遊んで暮らせるだけの金/一年遊んでA大学に入った。」
- ④ (多く「遊んでいる」の形で)金・道具・場所・人などが、有効に使われていない状態になる。  
「遊んでいる土地を活用する/不景気で人も機械も遊んでいる。建築などで、構造上力を担うはずの部材が緩んだり離れたりして役立っていない状態になることもいう。」
- ⑤ 《文》(「ある所に遊ぶ」の形で)他の土地へ行って学ぶ。また、他の土地へ行ってその風物などを楽しむ。「大学を出て一年フランスに遊んだ/空想の世界に遊ぶ。」
- ⑥ 物事の本筋からそれだことをちょっとはさみ入れて楽しむ。  
「ちょっと遊んでみたくなくて一場面追加する。」
- ⑦ 野球で、投手のカウント遊里の場面で、打者の打ち気をそらすためにわざとぼーになる球を投げる。「一球外角で遊んで、内角に勝負球を投げる。」

複合語로서 遊びにん(人)、遊びほう(惚·呆)ける등이 표제어 項目에 나타난다.

다음으로 한국어 『高麗大韓国語大辞典』(2009)<sup>9)</sup>의 「놀다」動詞에 관한 의미로서, 첫째는 自動詞에 대한 의미항목이다.

- ① (사람이)놀이나 재미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 ② (사람이)직업이나 일정하게 하는 일이 없이 헛되이 시간을 보내다.
- ③ (사람이)어떤 일을 하다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않고 편하게 보내다.
- ④ (사람이) 방탕하게 지내다.
- ⑤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서)주로 활동하다.

8) 松井栄一(2005)『日本語新辞典』小学館 pp.32-33.

9) 高麗大学校 民族文化研究院 国語事典編纂室(2009)『高麗大 韓国語大事典』高麗大学校 民族文化研究院 発行 pp.1281-1283.

- ⑥ (새, 물고기, 짐승 따위가)이리저리 돌아다니다.
- ⑦ (주로 ‘노는’의 풀이나 ‘놀고 있는’의 구성으로 쓰여)(기계나 건물, 따위가) 쓰이지 않고 있다.(使動)놀리다2-4
- ⑧ (회사나 가게, 학교 따위가)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이나 수업을 하지 않다.  
(유의)쉬다1-1.2
- ⑨ (물체가)고정되거나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이다.
- ⑩ (신체의 일부가) 자유롭게 움직이다.(使動)놀리다-2-1
- ⑪ (사람이 어떠한) 행동하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다.
- ⑫ (사람이 남의 말이나 행동에)따라 주책없이 들떠서 마구 행동하다.
- ⑬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움직이다.

다음으로 動詞「놀다」의 他動詞에 관한 의미항목이다.

- ① (사람이 어떤 재주를) 부리거나 행해 보이다.  
그는 곱사등이로 분장을 하고 곱사춤을 놀았다.
- ② (사람이 윗이나 주사위 따위를) 부리어 이기고 짐을 겨루다.  
例) 주사위를 놀다.  
설에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면 윗을 놀곤 했다.
- ③ (사람이 방해나 훼방 따위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행하다.  
例) 그 심술꾸러기가 방해를 노는 바람에 일이 모두 엉망이 되었다.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친구가 나타나서 훼방을 놀았다.
- ④ ((주로 ‘가지고 놀다’의 구성으로 쓰여))(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 하다.  
例) 네가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거냐?

動詞「놀다(2)의 形容詞는 (돈 따위가)드물어서 귀하다.

- 例) 아내가 아파도 돈이 놀아서 약을 못 쓰고 있다.(月釋-釋譜序2)  
家内が痛くてもお金が遊んで薬が買えなくている。

慣用句는 놀고 있다(앉았다)(비꼬아 이르는 말로)(사람이)남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다.

- 例) 그게 네 것이라도 되는 모양이지? 정말 놀고 있네.

그 녀석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설치다니 놀고 앉았네.

複合語는 놀고먹다(自), 놀아나다(自), 놀아먹다(自)가 있고, 이밖에 관용구 또는 속담<sup>10)</sup>에 관한 의미도 記述하고 있다.

### 3. 日·韓動詞의 多義語의 副詞的 表現 分析

#### 3.1. 移動的인 体系와 多義的 表現의 관계

일본어와 한국어 動詞의 多義語의 共起的, 副詞的 表現 分析은 동사의 移動的인 体系와 關連된다. 動詞의 移動体系는 「ふらつく」、「ぶらつく」、「うろつく」、「うろろろする」、「さまよう」、「さすらう」、「放浪する」의 7개의 類型으로 나뉜다.

- |                            |   |
|----------------------------|---|
| 1) 人々はあっちこっちふらつく。          | 사람들은 여기저기 <u>어정거린다</u> .(日:328)                 |
| 2) 妹は大学を卒業してまだ<br>ぶらついている。 |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br><u>빈들거리고(놀고) 있다</u> .(日:328) |
| 3) 私は当てどもなく町をうろつく。         | 나는 정처없이 거리를 <u>헤맨다</u> .(日:328)                 |
| 4) 池田さんはうろろろして歩きまわった。      | 이케다씨는 어정버정 <u>돌아다녔다</u> .(日:189)                |
| 5) 隣の人々はふぶきの中をさ迷う。         | 이웃사람들은 눈보라속을 <u>헤맨다</u> .(日:266)                |
| 6) 野球選手は荒野をさすらった。          | 야구선수는 황야를 <u>떠돌아다녔다</u> .(日:287)                |
| 7) 彼は旅を續いて放浪した。            | 그는 여행을 계속하며 <u>방랑했다</u> .(日:379)                |

이러한 移動的인 体系의 特徵을 보인다. 그 특징은 「①(아주 좋다)목적의

10) [노는 입에 염불하기](遊んでいる口で念仏を唱える)

: 하는 일없이 노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말.

(何のこともしないで遊ぶよりは何でもするのがいいという言葉)

[논 끝은 없어도 일한 끝은 있다.](遊んだ終りはなくても仕事した終りはある)

[논 자취는 없어도 공부한 공은 남는다.](遊んだ足跡はなくても勉強した眞は残る)

[놀기 좋아 너동 치기(遊び好きでノックンする)]

[놀던 계집이 결판이 나도 엉덩이짓은 남는다.](遊んだ女が駄目になってもおしりのしぐさは残る)

:① 오랜 습관이 된 것은 좀처럼 떨어 버릴 수 없다는 말.

(習慣になったことはめったに払拭できないことを比喩的に使う言葉)

② 망해도 죄다 없어지는 법은 없고 무언가 남는 것이 있다는 말.

(あるものが亡びてしまっても全て消えなくて何か残るのがあることを比喩的に至る言葉)

없는 상태 ②遠近의 거리를 정해진 장소가 없는 채로 이동하다 ③이동할 때는 다른 동작에 비하여 서두르지 않고 유유자적하다 ④마이너스 이미지」 등 이다.

<ふらつく(自五)>: 何となく歩き回る。

<ぶらつく(自五)>: ぶらぶらと歩き回る。

<うろつく(自五)>: 目的もなく行ったり来たりする。あたりをうろろろする。(さまよう)

<うろろろする(名·自五)>: 目的もなくさまよい歩く。どうして良いか判断がつかず動き回る。

<さまよう(自五)>: あてもなく歩き回る。(さすらう)

<さすらう文(自五)>: あてもなくあちこちさまよう。(放浪する、流浪する)

<放浪(する)(名·自)>: あちこちさすらい旅する。

이와 같은 일본어의 移動的인 体系와 각 多義語의 共起的, 副詞적 표현의 意味解釋을 보면 「何となく、ぶらぶら、目的もなく、あてもなく、あちこち、あたり(を)」라고 하는 副詞와 「歩き回る、行ったり来たりする、うろろろする、さまよう、さすらい旅する」 등의 動詞에 따라서 說明될 수 있다.

「うろつく」는 「さまよう」·「うろつく」라는 「낙오하다」·「본대에 이탈하여 헤매다」의 意味이고, 「さまよう」는 「放浪する」라는 「한가로이 거닐다·산책하다」이고, 「[人があてもなく]さまよう」는 「정처 없이 헤매다」의 意味를 지닌다. 「[~を]さまよう·行きつ戻りつする」는 「방황·배회하다」라는 해석이다. 「さまよう」는 「[人があてもなく]さまよう」 「정처 없이 헤매다」의 意味를 지니면, 「[場所で]さまよう·ぐずぐずする」形態의 意味와 「[…の間で]ためらう·ちゅうちよする」의 形態를 취하고 있다. 또한 「[~を]さまよう·行きつ戻りつする」는 「방황·배회하다」라는 「生死をさまよう」의 用例를 가진다. 「ぶらつく」는 「[人などが場所で]自由に楽しく広範囲に歩き回る·ぶらつく·放浪する」 「떠돌다·배회·방랑하다」의 뜻과, 「[~を]ぶらつく·漫步する·散策する」는 「어슬렁어슬렁 거닐다·산보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放浪する」에는 「[~を]放浪する」의 「방랑하다·떠돌아다니다」라는 의미와 「さまよう·放浪する」의 「한가로이 거닐다·산책하다」의 意味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移動系의 動詞 「遊ぶ」에 대한 多義語를 다음과 같은 表로 確認해 볼 수 있다.

(表1)

〈移動系의 多義語關係〉

項目	さまよう	さすらう	ぶらつく	うろつく	放浪する	うろろろする	合計

(歩き回る、さまよう)헤매다·배회·방랑하다	○	○	○	○	○		5
(~を歩き回る、ぶらつく)떠돌다·배회·방랑하다		○	○		○		3
(ぶらつく、散歩する)한가로이 거닐다·산책하다	○		○		○	○	4
(うろつく)어슬렁거리다·배회하다	○			○			2
(ちらばる)낙오하다·본대에 이탈하여 헤매다				○			1
(獲物を狙って)うろつく、さまよい歩く기웃거리다				○			1
(あてもなく)さまよう 정처없이 헤매다	○						1
(うろつく)방황·배회하다	○						1
(ぶらぶら歩く)비틀거리다·아장아장 걷다						○	1
(ろばいする)안질부질 못하다·당황하다						○	1
(ぶらぶら歩く、漫歩する)어슬렁어슬렁 거닐다·만보하다			○				1
(漂流する)표류하다·목적 없이 헤매다		○					1
(ぐらつく、よろめく)비틀거리다·주저하다				○			1
(よろめく、ぐらつく)비틀거리다·흔들흔들하다				○			1
(つまづく、よろめく)비틀거리다				○			1
(うろろうする、こそこそする)서성거리다						○	1
(どしどしん歩、放浪する)방랑하다·떠돌아다니다					○		1
(ぶらつく)꾸물거리다						○	1
合計	5	3	4	7	4	5	28

이와 같이 「遊ぶ」에 有閑의 移動, 動作系의 動詞는 대부분이(헤매다·배회·방랑하다),(떠돌다·배회·방랑하다), (한가로이 거닐다·산책하다), (어슬렁거리다·배회하다)의 多義語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든 意味項目이더라도 그것이 特別한 多義語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표에서 알 수 있듯이 各 單語는 세로의 各 多義語의 合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로의 意味項目이 보다 細分化되고, 숫자가 많은 만큼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意味分析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移動体系와 関連된 多義語 動詞에 관한 「うろつく系」·「ぶらつく系」·「さまよう系」의 用例도 볼 수 있다.

- |                                   |  |
|-----------------------------------|--|
| 8) 兄は失業して半年もぶらぶら <u>歩いて</u> いた。   | 형은 실직하여 반년이나 빈둥빈둥 <u>놀고</u> 있다.(日:347) |
| 9) 山口さんは市内の町を <u>徘徊した</u> 。       | 야마구치씨는 시내거리를 <u>배회했다</u> .(日:309)      |
| 10) その店は偽物が出 <u>回った</u> 。         | 그 가게는 가짜가 <u>나돌았다</u> .(日:213)         |
| 11) 彼らは森を <u>逍遙する</u> 。           | 그들은 숲(속)을 <u>소요한다</u> .(日:196)         |
| 12) 男の学生たちは3年前に諸国を <u>流れ歩いた</u> 。 | 남학생들은 3년 전에 각국을 <u>떠돌아다녔다</u> .(日:267) |

이러한 移動系에 나오는 각각의 多義語의 부사적인 表現의 意味 項目을 보

면 「歩き回る」·「うろうろする」 등의 動詞에 따라 설명되어진다.

### 3.2. 休息的인 体系와 多義的 表現의 관계

動詞의 体系 가운데 休息体系는 「やすらぐ」、「くつろぐ」と「なまける」、「おこたる」、「ぼんやりする」의 4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 |                                  |                                       |
|----------------------------------|---------------------------------------|
| 13) もう気持が <u>安らぐ</u> 。           | 이제 마음이 <u>편안해진다</u> .(日:579)          |
| 14) 家族のみんな温泉で <u>寛</u> いている。     | 가족이 모두 온천에서 <u>편안히 쉬고 있다</u> .(日:498) |
| 15) 子供は <u>怠</u> ける癖がつく。         | 아이는 <u>게으름피는</u> 버릇이 든다.(日:274)       |
| 16) 明子は勉強をおこたる。                  | 아키코는 공부를 <u>게을리 한다</u> .(日:113)       |
| 17) そのことを <u>ぼんやり</u> としか覚えていない。 | 그 일을 <u>어렴풋이</u>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日:372)  |

이들 動詞는 그다지 距離的으로 移動이 없고 定置的인 것을 意味한다.

「くつろぐ」는 「[…で…して]寛ぐ、リラックスする」의 形態이고, 「彼女は週末のおかげで寛げた」의 用例의 뜻을 취한다. 「㉠」는 일한 후에 「休む、寛ぐ」의 形態이고 「ちょっと休む」의 뜻을 취하며, 結果는 편안함을 준다. 「休息」은 「休む、休憩する[仕事などを休む]」의 形態이고, 「人などが」·「場所に」·「横」가 되는 休む의 形態이고, 「ひじかけ椅子で休む」의 의미를 취하게 된다. 「なまける」는 「のらくらしている、怠ける、寝転がる」의 뜻을 취하고 있다. 「おこたる」는 고의로 「忘れる」、「～しそびれる」、「意図的に」、「無視する」의 意味를 지닌다.

休息的인 体系의 特徴으로서는 「あまり距離的に移動がなく定置的である。」라고 하는 것이다. 동사를 보면 ㉠ 「やすらぐ、くつろぐ」는 「몸의 피로를 진정시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다」라는 「플러스(+)이미지」를 보이며, ㉡ 「なまける、おこたる、ぼんやりする」는 「단지 목적、의도도 없이 시간을 보내다」라는 「마이너스(-)이미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の<安らぐ>: 穏やかで満ち足りた気持になる。

<寛ぐ>: 心身をゆったりと休める。

㉡の<怠ける>: 労力を惜しんで本来する仕事や勉強を行わない。いい加減に過ごす。

<怠る>: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しない。

<ぼんやりする>: 我を忘れて呆然とする。

이와 같이 ㉠은 새로운 行為를 전적으로 하기위해 再充填을 한다. 그에 반하여 ㉡는 할일 없이 시간을 보낸다(無駄に時を過ごすだけである)는 의미 특징을 지닌다.

### 3.3. 情態적인 体系와 多義的 表現의 관계

情態体系(遊ぶ)에는 「もてあそぶ」(弄ぶ, 玩ぶ), 「いじる」(弄くる)(俗), 「ろうする」(弄する)의 3가지의 類型으로 나뉜다.

- 18) 子供たちは野原で火をもてあそぶ。 아이들은 들뜰에서 불을 가지고 장난한다.(日:418)
- 19) 鈴木君は泥を弄りまわします。 스즈키군은 진흙을 마구 주물러 뒹니다.(日:382)
- 20) 彼は詭弁を弄した。 그는 꾀변을 농한다.(日:393)
- 21) 義子は演技の技巧を弄する。 요시코는 연기의 기교를 부린다.(日:393)

이들 動詞는 같은 系統으로 사람(相手) 또는 물건의 対象이 있는 마이너스 이미지와 「あざける(嘲る), からかう, なぶる」는 他人(相手)을 자신보다 내려다보는 마음으로 대하는 마이너스 이미지의 特徴을 나타내고 있다.

- もてあそぶ(弄ぶ, 玩ぶ)(他五) |
- いじる(弄くる)(俗) (他五) | ㉠(같은 系統으로)사람(상대)또는 물건의 対象이 있다.(-)이미지(特徴)
- ろうする(弄する) (他五) |
- あざける(嘲る) (他五) |
- からかう (他五) | ㉡타인(상대방)을 자신보다 내려다본나 기분으로 대하는(-)이미지(特徴)
- なぶる (他五) |

- 「もてあそぶ(弄ぶ, 玩ぶ)(他五)」: 手に持って遊ぶ。思うままにする。おもちゃにする。
- 「いじる(弄くる)(他五)」: 指でさわってもてあそぶ。興味本位に好きなことをする。
- 「ろうする(弄する)(他五)」: 思いのままにする。(もてあそぶ)
- 「あざける(嘲る)(他五)」: 人をせせら笑うように、馬鹿にする。
- 「からかう(他五)」: ふざけて相手を困らせたり、恥ずかしがらせたりして面白がる。
- 「なぶる(他五)」(人): 人を苛めて楽しむ。からかいひやかす。(物): いじる。手でもてあそぶ。

「いじる」와 「もてあそぶ」는 「[~を]いじる·もてあそぶ」의 意味와 「[人を]いい加減に扱う·軽くあしらう·」 또는 「[他人の感情などを]もてあそぶ」, 「[~を]いじる·不真面

目に扱う」, [物を]いじくる・もてあそぶ」라는 多義語의 語彙 体系를 취하고 있다。

22) 彼女の愛情をもてあそぶな。 그녀의 애정을 장난하지마라。(日:436)

23) 幸子をもてあそぶ。 사치코를 가지고 놀다。(自作例)

이러한 양언어의 어휘체계 形態의 구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것은 情態的 体系의 특징을 보인다. 情態的인 体系의 特徵으로서 「①(같은 계통에서)사람 또는 사물의 대상이 있다. ②타인을 자신보다 내려 보는 마음으로 대하다 ③마이너스(-)이미지」를 가리킨다.

<もてあそぶ(弄ぶ、玩ぶ)(他五)>:手に持って遊ぶ。思うままにする。おもちゃにする。

<いじくる(弄くる)(他五)>:指でさわってもてあそぶ。興味本位に好きなことをする。

<ろうする(弄する)(他五)>:思いのままにする。(もてあそぶ)

<あざける(嘲る)(他五)>:人をせせら笑うように、馬鹿にする。

<からかう(他五)>:ふざけて相手を困らせたり、恥ずかしがらせたりして面白がる。

<なぶる(他五)>(人):人を苛めて楽しむ。からかいひやかす。(物):いじる。手でもてあそぶ。

이러한 行為者는 他人(物)에 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이나 마음이 향하는 대로 行動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 4. 多義語의 範疇에 속하는 語句의 관계

다음의 부사적인 표현은 遊ぶ의 휴식적인 체계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多義語의 範疇에 속하는 語句의 관계에 의한 用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のんびりしている。(한가로이(한가롭게) 하고 있다)

b) ぶらぶらしている。(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다)

이러한 예는 「副詞(副詞+動詞)」에 해당하고, 이외에 사전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副詞의 種類를 살펴보고자 한다. 韓國語의 用例는 『엣센스韓日辭典』(2011)<sup>11)</sup>에서 기술한 것이다.

あくせく(と)(악착)	ごろごろ(빈둥빈둥)	ばりばり(열심히)	ぼさっと(멍청하게)
いきいき(생생한, 싱싱한)	せっせと(부지런히)	ひぐらし(하루종일)	ぼつねんと(오도카니)
いやいや(마지못해서)	そぞろに(공연스레)	ひねもす(온종일)	ぼんやり(멍하니)
うかうか(엄병덤병)	つくねと(멍하니)	ひよいひよい(と)(깡충깡충)	まめまめしく(꼼꼼하게)
うきうき(신이 나서)	とかく(아무튼)	ふらふら(어슬렁어슬렁)	休み休み(쉬엄쉬엄, 작작)
うとうと(꾸벅꾸벅)	どしどし(자꾸자꾸)	ふらりと(불쑥)	ゆめ(꿈, 반드시)
うつうつ(깜빡깜빡)	のびのび(편안함)	ふらりと(홀쩍, 불쑥)	ゆめにも(꿈에도, 결코)
うろうろ(어정버정)	のらくら(빈둥빈둥)	ぼうと(멍하게)	ゆっくり(편히, 넉넉히)
がりがり(쉬지않고)	のらりくらり(빈둥빈둥)	ぼかんと(딱, 짝)	ゆうゆう(한가하게)
ぐずぐず(우물쭈물)	のんびり(한가로이)	ぼ야ぼ야(어리둥절)	

이와 같이 양언어의 副詞를 構成面에서 大別하면 3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sup>12)</sup>

c) 兩言語 모두 같은 音節이 重複되는 型。

○ いきいき(생생한, 싱싱한)	○ のらくら(빈둥빈둥)
○ うとうと(꾸벅꾸벅)	○ のらりくらり(빈둥빈둥)
○ うつうつ(깜빡깜빡)	○ ひよいひよい(と)(깡충깡충)
○ うろうろ(어정버정)	○ ふらふら(어슬렁어슬렁)
○ ぐずぐず(우물쭈물)	○ まめまめしく(꼼꼼하게)
○ ごろごろ(빈둥빈둥)	○ 休み休み(쉬엄쉬엄, 작작)
○ どしどし(자꾸자꾸)	

d) 日本語에서는 같은 音節이 重複되는데, 韓国語에서는 다른 型。

○ いやいや(마지못해서)	○ のびのび(편안함)
○ がりがり(쉬지않고)	○ ばりばり(열심히)
○ うきうき(신이 나서)	○ ぼ야ぼ야(어리둥절)
○ がりがり(쉬지않고)	○ ゆうゆう(한가하게)

f) 兩言語 모두 相違한 構成으로 이루어져 있는 型。

○ あくせく(と)(악착)	○ ひぐらし(하루종일)	○ ぼさっと(멍청하게)
---------------	--------------	--------------

11) 孫洛範ほか(2011) 『民衆эт센스日韓辞典』 제2개정판 民衆書林 pp.27-3079.

12) 金到閔(2016) 『日·韓語彙對照研究』 学士院, pp.61-113.

○ 세ッセと(부지런히)	○ ひねもす(온종일)	○ ぼつねんと(오도카니)
○ そぞろに(공연스레)	○ ふらりと(불쑥)	○ ほんやり(명하니)
○ つくねんと(명하니)	○ ぶらりと(홀쩍, 불쑥)	○ ゆめ(꿈, 만드시)
○ とかく(아무튼)	○ ぼうっと(명하게)	○ ゆめにも(꿈에도, 결코)
○ のんびり(한가로이)	○ ぼかんと(딱, 짝)	○ ゆっくり(편히, 넉넉히)

例外로서 一部分만 다른 것인 「うかうか(엄병딴병)、うろうろ(어정버정)、のらくら(빈둥빈둥)」 형태도 있다.

이러한 構文에서 意味가 결정되는 것은 構文의 前後 文脈에서 플러스 이미지인 가, 마이너스 이미지인가로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動詞는 「~する」의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때로는 前後 文脈이 너무 짧으면 「働く」系와 「遊ぶ」系の 意味로 이루어지기도 한다.<sup>13)</sup> 본고에서는 지면상 「働く」系와의 비교분석은 생략하고, 「遊ぶ」系の 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遊ぶ」系 : 플러스 이미지

24) 出国が迫ると気分が浮き浮きしてきた。(https://search.yahoo.co.jp/image)

25) 祭りの太鼓の音を聞くと気もそぞろになる。(うきうきと楽しくなる。)(https://search.yahoo.co.jp/image)

27) 夏休みはハワイでのびのび過ごして来た。(https://search.yahoo.co.jp)

29) 彼は一人暮らして身軽だから、言われればどこへでもひよいひよい出かけて行く。(日:78-129)

26) 마음이 들떠서 종작없이 거닐다.(https://search.naver.com/search)

28) 마음이 편안하고 누긋하다.(https://search.naver.com/search)

30) 징검돌을 따라 깡충깡충 건너가다.(https://search.daum.net)

(2) 「遊ぶ」系 : 마이너스 이미지

31) 昨夜はよく眠れなかった。明け方少しうつつただけだ。(https://search.yahoo.co.jp)

32) 彼は冬になると、寢床でぐすぐずしていて、時間になってもなかなか起きない。(日:286)

33) そんなにごろごろしてばかりいないで、少しは手伝たらどうなの。(日:356)

34) 何もせず、膝を抱えてつくねんとテレビばかり見ている。(https://search.yahoo.co.jp)

35) 피곤해서 깜빡깜빡 졸다.(疲れてうつうつと眠る。)(https://search.naver.com)

36) 꾸물거리면 기차를 놓친다.(ぐすぐずすと汽車におくれる。)(https://search.naver.com)

37) 길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맸다.(道がわからずうろうろした。)(https://search.daum.net)

13) 前掲書 pp.61-113.

38) 실직해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https://search.naver.com>)

「遊ぶ」系와 ‘놀다’는 의미항목에서 플러스 이미지와 마이너스 이미지로 나뉘며 두 언어 모두 두 이미지의 차이를 확연하게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두 언어는 의미면에서 다른 차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일본어와 한국어 동사인 「遊ぶ」와 「놀다」를 둘러싼 語彙体系의 位置를 살펴보고 多義語의 關係를 이끌어내어 그것을 「遊ぶ」와 「놀다」 등의 用法과 比較하여 이들 單語의 共起的이고 副詞的인 表現에 대한 意味關係를 분석했다. 일본어 동사 「遊ぶ」의 語彙体系를 3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移動体系는 어떤 場所 안, 또는 距離를 移動하는 경우로서, 「遊ぶ」의 有閑적인 移動, 動作系의 動詞는 대부분이 헤매다·배회·방랑하다, 떠돌다·배회·방랑하다, 한가로이 거닐다·산책하다, 어슬렁거리다·배회하다의 意義素에 가깝게 構成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休息体系는 그다지 움직임이 없이 定置하고 있는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情態体系는 場所, 距離의 遠近에 關係없이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狀態 또는 사물과 사람, 動物을 상대로 하는 의미를 나타내었다.

동사 「遊ぶ」와 「놀다」는 「副詞+動詞」構文에서 여러 가지 共起的, 부사적 표현의 動作을 하고 있다. 이들 動作은 現代人의 바쁜 生活속에서 一時的인 휴식과 기분전환을 나타내는 表現으로서 나타났고,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확대된 의미로 사용되는 多義적 어휘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일·한 양국어의 동사 ‘遊ぶ’와 ‘놀다’의 多義語의 부사적 표현의 어휘 분석을 통하여 차이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 지면상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 가운데 명사와 관용구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도록 금후 과제로 한다.

## 【참고문헌】

- 김하수外(2007) 『韓国語教育을 위한 韓国語 連語辭典』 커뮤니케이션 북스 pp.13-178.
- 斗山東亜辞書編輯局(2000) 『東亜프라임 韓英辭典』 斗山東亜 pp.38-250.
- 孫洛範ほか(2011) 『民衆옛센스日韓辭典』 제2개정판 民衆書林 pp.52-2060.
- 延世大言語情報開發研究院(1998) 『延世 韓国語事典』 (株)斗山 pp.25-1398.
- 奥長尾勇(1973) 『類語用例辭典』 第二版 集英社 pp.10-397.
- 国立国語研究院(1999) 『標準国語大辭典』 (上)ㄱ~ㄴ 斗山東亜(株) pp.238-385.
- 金敏洙外(1991) 『金星版 国語大事典』 金星出版社 pp.78-263.
- 金田一京助外(1992) 『日本語国語大辭典』 三省堂 pp.25-328.
- 金田一春彦外(1980) 『学研国語大辭典』 第二版 学習研究社 pp.32-296.
- 小泉保ほか(1989) 『日本語基本動詞用法辭典』 大修館書店 pp.30-210.
- 日本国語大辭典編集部(2000) 『日本国語大辭典』 第2版 小学館 pp.24-450.
- 松井栄一(2005) 『日本語新辭典』 小学館 pp.32-33.
- 森田良行(1989) 『基礎日本語辭典』 角川書店 pp.42-44.
- 藥師寺章明(1983) 『新修 類語用例辭典』 第2版 集英社 pp.17-288.
- 金到閔(2016) 『日·韓語彙対照研究』 学士院, pp.61-113.
- 田靖雄(1960) 「を格のかたちをとる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1968~1972) 「を格の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 言語学研究会編(1983) 『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 むぎ書房 pp.151-279.
- \_\_\_\_\_ (1967) 「語彙的な意味のあり方」 『教育国語』 8号, 同1985 『ことばの研究・序説』 むぎ書房 pp.3-20.
- 鈴木孝夫(1990) 『日本語の語彙と表現』 日本語講座第四卷 大修館書店 pp.27-345.
- 田中章夫(1978) 「語彙の体系と構造」 『国語語彙論』 明治書院 p.68.
- 宮島達夫(1972) 『動詞の意味・用法の記述的研究』 国立国語研究所 秀英出版 pp.5-13.
- 森田良行(1992) 『日本語の類意表現』 創拓社 pp.13-49.
- 高麗大学校 民族文化研究院 国語事典編纂室(2009) 『高麗大 韓国語大事典』 高麗大学校 民族文化研究院 発行 pp.1281-1283.
- 金到閔(2005) 「日·韓两国語の動詞の意味と構文分析について」 『日語日文学研究』 第52輯 2月号 韓国日語日文学会, pp.99-118.(KCI에 김명숙)
- \_\_\_\_\_ (2016) 「日本語動詞の語彙的な意味使用の分析-アソブを中心に-」 『日本文学學報』 第71輯 韓国日本文化学会, pp.117-134. (DOI:https://doi.org/10.21481/jbunka.71.201611.117)
- \_\_\_\_\_ (2018) 「日·韓 两国語 動詞의 多義的인 語彙分析研究-遊ぶ와 놀다를 中心으로-」 『日本文学學報』 第78輯 韓国日本文化学会, pp.379-396. (DOI:https://doi.org/10.21481/jbunka.78.201808.379)
- 韓有錫(2010) 『日韓分類語彙比較』 韓国文化社 pp.702-703. (DOI:https://doi.org/10.21481/jbunka.82.201908)

## 【용례자료】

靑空文庫インターネットの電子図書館 小説50選上・下

新潮文庫の100冊 CD-ROM版 新潮社

国立国語研究所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少納言)

[http://kotonoha.gr.jp/shonagon/search\\_form](http://kotonoha.gr.jp/shonagon/search_form)

国立国語院 『21世紀世宗計劃』(言語情報나눔터)

<https://www.yahoo.co.jp>

<https://www.daum.net>

<https://www.naver.com>

논문 투고 일자 : 2017. 06. 30.

논문 심사 일자 : 2019. 08. 02.

게재 확정 일자 : 2019. 08. 05.

---

 <要旨>
 

---

## 日・韓動詞の多義語の副詞的な表現に関する研究

-遊ぶと놀다を中心に-

金到閏

本研究では日本語と韓国語の動詞である「遊ぶ」と「놀다」をめぐる語彙体系の位置から多義語の関係を引き出し、それを「遊ぶ」と「놀다」などの用法と比較して、これらの単語の共起的であり副詞的な表現の持つ意味関係を調査した。日本語の動詞「遊ぶ」の語彙体系を三つに区分した。まず、移動体系は何らかの場所で作られたか、または距離を移動した場合であり、「遊ぶ」の有閑な移動または動作系の動詞はほとんどが「徘徊・まったりやすい、迷い・放浪、のんびりする、散歩する、うろつく・徘徊」の意義素に近く構成され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休息体系はあまり動きがなく、定置している場合であり、次に情態体系は場所や距離の遠近に関係なく、動いて動き回る状態や事物と人、動物を相手にする意味を表していた。

両言語の動詞の「遊ぶ」と「놀다」は「副詞+動詞」の構文で複数の共起的、副詞的な表現の動作を行うものである。これらの動作は現代人の多忙な生活の中で一時的な休息と気晴らしを意味する表現として現れ、これからより多様で拡大された意味で使用されるであろう多義的語彙である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た。以上、本研究では日・韓両言語の動詞「遊ぶ」と「놀다」の多義語の副詞的な表現の語句解釈を通じて意味の違いが多様にあら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わかった。

## A Study on the Polysemy Adverbial Expression Language of Japanese and Korean Verbs

- Focusing on Asobu and Nolda -

Kim, Do-Eun

This study examined the positions of vocabulary systems in relation to the Japanese verb 'asobu' and the Korean verb 'nolda,' derived their polysemy relations and compared their uses, so as to examine the semantic relations of their co-occurring and adverbial expressions. The vocabulary system of the Japanese verb 'asobu' was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First, the mobile system is used for movement in a place or on a street. This study found that limited movement and action verbs of 'asobu' were mostly composed to be close to the composition of semantemes of Japanese words meaning 'wander,' 'roam,' 'stroll,' and 'loiter.' Second, the resting system is used when something is placed in a set place with virtually no movement. Lastly, the modal system is used with a state, an object, a person or an animal that moves and travels irrespective of places and distances.

The verbs 'asobu' and 'nolda' are used as action verbs that include different co-occurring and adverbial expressions in the sentence structure consisting of an adverb and a verb. These action verbs are used in expressions meaning a temporary break or diversion in a hectic life of modern society. It was found that the verbs were used in polysemy vocabulary expressions with more various and expanded meanings.